

신진예술가 전시 · 연극 무대 펼쳐진다

전주문화재단 후원... 김규리 작가 사진 전시 · 김민지 기획자 창작 연극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의 후원으로 시각과 공연 분야 신진예술가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시각 분야 선정자 김규리 작가는 '기억의 만남'을 주제로 장소의 다양한 시선과 흔적을 담아낸 사진 전시를 연다. 또 공연 분야 선정자 김민지 기획자는 세 명의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먼저, 김규리 작가의 전시 <만남 수 없는 곳에서 마주치지도 못할 시간을 기다리다>는 현실과 상상이 겹쳐지는 풍경 속에서 기억의 흔적을 탐구한다. 상징적인 동물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장면을 그려내며, 실재하는 전통의 공간을 기억과 상

상의 풍경으로 재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 작가는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전주신진예술가지원을 통해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래된 풍경 속에서 기억과 상상이 스치는 순간을 담아낸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15~23일 뜻밖의미술관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공연 분야 선정자 김민지 기획자는 첫 창작 연극 <편지가 늦었소>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비문해 할머니들의 삶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리며,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김 기획자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작

품을 재단의 지원으로 무대에 올리게 돼 설레고 벅차다"며 "이번 공연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분들과 마음의 상처를 지닌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극 <편지가 늦었소>는 오는 24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창작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전석 2만 원이며, 예매 및 문의는 전화 010-6389-5094로 가능하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올해 선정된 8명의 신진 예술가 중 마지막 두 명의 작품 발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면 큰 창작동력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025년 전북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이 지난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열렸다.

전북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포럼 열려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성평등 정책 비전 · 성주류화 확산 방안 모색

'2025년 전북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이 지난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열렸다.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 비전과 성주류화 확산'을 주제로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도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성평등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성주류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정정희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원정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유은경 소장(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의 주제발표와 네 명의 지정 토론이 이뤄졌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

제발표에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탄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와 성주류화 기반 조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 비전(안)과 함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전략과제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성주류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진명숙 교수(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전북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를 좌장으로 이현주 센터장(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추주희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최혜영 연구원(일하는여성아카데미), 양지연 컨설턴트(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연희부 정기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연희부 정기공연 '유랑의 꽃'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 유랑의 꽃은 우리 연희의 근간인 흥(興)과 신명(神明)을 전통의 결 위에 현대적 무대미학을 더해 새롭게 펼쳐내는 무대로, 호남 여성농악의 예술적 완성도를 구현한 작품으로, 유순자 명인을 비롯한 호남 여성농악보존회의 예술 정신을 잇고, 연희부 단원들의 기량을 더해 전통의 맥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풀어냈다.

공연은 △첫째마당 '오채칠궁' △둘째마당 '오방전궁' △셋째마당 '두마치궁' △넷째마당 '호하궁'까지 이어지며, 리듬의 빠르기·세기·밀도를 점층적으로 변화시켜 신명의 절정을 이끌어 내며, 그 속에서 단원들의 완벽한 호흡과 숙련된 기량이 빛어내는 '한국적 에너지의 미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은 국악원 누리집이나 전화(063-620-2329) 또는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관광객 한복문화 체험 운영

남원시 관광시설과(과장 오미선)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말 6일간, 광한루원 일원과 화인당에서 '나도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관광객 대상 한복문화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광한루원 라운지 by 화인당'과 연계, 광한루원이 가진 전통문화 콘텐츠에 드라마 한복 코스프레와 스타일링 체험을 더한 이색적인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4)

혼인굿은 처음 보는 거지?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국민학생 때와 달리 명희는 하교할 때 집으로 가는 길은 방랑의 여자아이들과 같이 움직였는데, 남준을 만날까 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만나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과 또 만나면 가슴 안에서 피어나는 박하향이 낯선 부끄러움으로 서로 충돌하면서 가슴 안에서 굿을 뿜 때 느끼는 야릇한 흥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준은 명희를 볼 때나 생각할 때 가슴 한쪽에서 피어나는 박하향이 무엇이라는 걸 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명희에게 어떤 것이든 보여주거나 행동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더 솟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굿패와 무당에 뛰어드는 것으로 부모님과 목제가 이뤄진 터였다. 물론 남준과 명희도 그걸 숙명으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굿패로서 갖춰야 할 악기연주와 연행에서 시행하는 춤사위 등을 배우는데 더 열중했고 명희 또한 어머니 연기덕으로부터 무당으로서 지녀야 할 예능을 학습하는데 충실했다.

그런고로 두 사람은 학교가 아닌 굿관에서 지주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명희가 일부러 남준을 피하느라 그랬지만 굿관은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처지라 지근거리에서 서로의 향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남준과 명희가 굿관에서 역할을 맡아 연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심부름이나 기타 부수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으로 둘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일도 많았다.

무구인 방울이나 신갈, 혹은 악기인 장구나 징을 옮겨줄 때 간혹 서로의 손이 겹칠 때가 있었는데, 명희의 손이 남준의 손에 닿았을 때는 뜨거운 땀가에 대인 듯 명희는 화들짝 놀라곤 했는데, 그 놀라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애쓰다보니 목 언저리 어딘가에서 식은땀이 배어나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여름 어느 날, 신동택은 남준에게 무구와 장구, 북을 챙기게 했다. 연기택네와 함께 혼인굿을 하러 간다고 했다.

혼인굿은 세상을 버린 미혼 남녀를 양가의 합의하에 영혼결혼식을 올려주는 망자들의 혼인굿인 것이다. 남준은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망자혼인굿을 보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되었다.

굿을 하는 장소는 월림에서 십여 리 떨어진 구암리와 용대리 중간 좁은 위치인 구암저수지였다.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남준

네와 명희네는 봉림마을과 황전마을 중간 어귀에서 만나 산길과 신작로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다.

명희는 남준을 보자 고개를 옆으로 틀고 남준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남준도 괜히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얼른 옆에 서 있는 노티나무로 보냈다.

"명희야, 남준이랑 아는 체하지 않는 거야?"

신동택이 얼굴에 짓궂은 미소를 담고 물었다. 연기택도 빙그레 웃으며 남준과 명희를 번갈아 쳐다봤다.

명희는 그렇지 않아도 얼굴에 홍조가 올라왔는데 그 말을 듣자 더 얼굴이 붉어져 잘 익은 홍시를 연상케 했다.

"허허허, 다 컸구나, 다 컸어."

박규환이 웃음을 날리며 허공을 향해 말했고, 강병도도 따라 웃었고 연기택도 명희와 남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구나 악기는 가져가도 결혼식에 쓰일 물건들은 혼인식의 양가부모가 마련하도록 미리 통기를 해놓은 상태였다. 남준은 장구와 팽과리, 무구를 싣 보자기를 짊어졌다.

"남준이가 사내 한 뭉은 하는구나."

박규환이 남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호호호."

어른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명희와 남준이 따라가게 되었다.

"너도 혼인굿은 처음 보는 거지?"

말없이 걷는 게 지루해서 남준은 앞서가는 명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고 웃음기 어린 얼굴로 슬쩍 뒤를 돌아봤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